



[차세대 배터리 경쟁]
미래 경쟁력 핵심
‘전고체 기술력’
국내기업 초격차 박차
04

metro[®]

Life
[라이프]
식품업계
신사업 가속
‘재도약’ 한 목소리
L1



친환경 데이터센터 짓고...



디지털 책임 실천 앞장...

‘선한 디지털 기술’로 더 나은 세상 만든다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ESG 경영시대

카카오

카카오가 ESG 활동에서 눈에 띄는 성과들을 거두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자’는 카카오의 약속과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사회와 함께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카카오는 특히 ESG 보고서 발표를 통해 다양한 ESG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신뢰를 지속적으로 쌓아오고 있다.

카카오는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월드)’에 2년 연속 편입되고 아시아파시픽·코리아 지수에 신규 편입돼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또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ESG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했다. 글로벌 증권사 CLSA가 발간한 ‘아시아 ESG 보고서’에서 ‘아시아 인터넷/SW’ 부문 9위를 기록했다.

◆친환경 구축에 진심인 카카오

카카오의 ESG 중 환경분야 중심축은 ‘친환경 데이터센터’ 건립이다.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요한 물 사용량을 절감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글로벌 수준의 친환경 데이터센터로 운영할 예정이다.

안산시, 한양대학교와 손잡고 안산에 건립 중인 데이터센터는 2023년에 선보이고, 서울대학교와 협력을 통해 배곧 서울대 캠퍼스에 오픈되는 데이터센터는 2026년에 오픈 예정이다.

카카오는 지난 2021년 4월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ISO14001’도 획득했다. ISO 140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인증 중 하나로 기업이 환경경영을 기업경영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하는지 평가해 인증하는 국제규격이다.

카카오는 또한 친환경 서비스인 ‘그린 디지털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다. 우선, 카카오톡은 공유 전기자전거 서비스인 ‘카카오 T 바이크’를 개시했다. 경기도 성남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해 2021년 4월 기준 전국 12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약 1만대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또 카카오톡은 국내 모빌리티 업체에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기아자동차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카카오톡의 플랫폼과 기아자동차의 전기차 기술 및 인프라를 접목해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통한 대기환



안산에 건립 중인 카카오의 데이터센터가 올해 오픈할 예정이다.

최첨단 기술로 친환경 데이터센터 건립 공유 전기자전거 등 ‘그린 디지털’ 구축 카카오 탄소지수 통해 감축목표 제시

협력사 지속가능경영 가이드 수립 AI 알고리즘 교육 등 기술 윤리 점검 지배구조 선진화, ESG위원회 신설

경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카카오는 또 환경에 기여하고 있는 환경화 관련 정보를 ‘카카오 탄소지수’를 통해 공개하고 체계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카카오 탄소 지수는 카카오톡의 환경 기여 활동을 탄소감축량으로 환산한 데이터로, 탄소 감축총량을 기초로 매년 감축 목표를 제시할 계획이다.

또 환경 관련 글로벌 기구와의 소통을 위해, 글로벌 환경 이니셔티브 가입을 추진 중이다. 국내 인터넷 업계 최초로 ‘SBTi(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에 가입을 완료했으며, ‘RE100(Renewable Energy 100%)’ 가입을 추진 중이다.

◆AI 윤리, 프라이버시 등 사회적 책임 다해
카카오는 디지털 책임, AI(인공지능) 윤리, 프라이버시, 글로벌 협력, 소셜 임팩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기업 고유의 ESG 영역인 ‘기업의 디지털 책임’ 실천을 위해 노력 중이다.

카카오는 2021년 9월 만 14세 미만을 위한 알기 쉬운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작을 제작했다. 알기 쉬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

카카오의 개인정보 다루는 방법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 이용 등 총 6가지 주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대화 방식으로 제작했다.

카카오는 파트너와 함께 성장하는 윤리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인권 경영, 안전 보건, 환경 경영, 개인정보 및 지적재산권 보호, 윤리경영과 관련해 ‘카카오 협력사 지속가능경영 가이드’를 수립했다.

또 2021년 1월 발표한 ‘인권경영선언문’은 카카오톡 구성원과 비즈니스 파트너의 인권 보호 및 이용자의 정보보호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의무, 디지털 책임, 친환경 지향 원칙을 담은 선언문이다. 또한 국내 기업 중 처음으로 ‘중요발언 근절을 위한 원칙’을 발표하고 카카오톡 서비스 운영 정책에 반영했다.

지난해 4월 카카오톡은 다양한 서비스와 플랫폼, 기술 등에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는 의미의 ‘배리어 프리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기로 하고, 그 일환으로 공동체얼라인먼트센터(CAC)의 ESG총괄 산하에 ‘디지털 접근성 책임자(DAO)’를 국내 IT 기업 최초로 선임했다.

또 카카오톡은 2018년 국내 기업 최초로 AI 기술개발 원칙인 ‘알고리즘 윤리헌장’을 제정하고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다. 2019년 8월과 2020년 7월 두 개의 조항을 추가해 ▲카카오 알고리즘의 기본 원칙 ▲차별에 대한 경계 ▲학습 데이터 운영 ▲알고리즘 독립성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 ▲기술 포용성 ▲아동 및 청소년 보호 등을 포함하는 7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또 지난해 카카오톡 공동체얼라인먼트센터는 공동체 전반에 걸쳐 기술 윤리를 점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 참여 프로젝트 카카오같이가치 ‘모두의 행동’ /카카오

하고, 사회와 함께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카카오 공동체 기술윤리 위원회’를 새롭게 출범했다.

카카오는 또한 2021년 2월 부터 전 직원이 참여하는 윤리 경영 온라인 사내 교육에 AI 알고리즘 윤리 교육 과정을 신설했다. 또 카카오톡 공동체얼라인먼트센터는 공동체 전반에 걸쳐 기술 윤리를 점검하고, 이를 사회와 함께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카카오 공동체 기술윤리 위원회’를 새롭게 출범했다.

◆카카오, 지배구조 선진화 노력

카카오는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을 처음 시행하기로 했다. 향후 3년간 별도기준 잉여현금흐름의 15%에서 30%를 재원으로 설정해 현금 배당,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전사 리스크 관리 규정을 고도화하고, 통합적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사회 차원의 전략적 리스크 관리 기능을 강화했다.

카카오는 ESG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 이사회 산하에 ESG 위원회를 신설했다. ESG위원회는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전략의 방향성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맡게 되며 최세정 사외이사, 박세훈 사외이사, 홍은택 사내이사로 구성돼 있다.

/채윤정 기자 echo@metroseoul.co.kr

YouTube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버스티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2023 홈런왕은 저지 아닌 게레로 주니어” MLB닷컴 전망
▲튀르키예 매체 “조규성, 갈라타사라 이행 마무리 단계” /사진 뉴시스

▲황희찬, 경쟁자 쿠냐 도착에 의연... “함께 뛰게 돼 기뻐”
▲여자배구 흥국생명, 시즌 중 권순찬 감독 전격 해임



▲‘오페라의 유령’·‘베토벤’·‘캣츠’... 2023년 뮤지컬 기대작 온다 /사진 뉴시스
▲문체부 “한국 여행을 세계인 버킷리스트로”